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니혼생명, 전 지점에 내점형 점포 설치

- 일본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은 고객이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는 ‘내점형 점포’를 업계 최초로 전 지점에 설치하기로 함.
 - 니혼생명은 고객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보험 관련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전국 107개 모든 지점 안에 내점형 점포를 설치·운영할 계획을 밝힘.
 - 1987년 업계에서 처음으로 내점형 매장을 도입한 니혼생명은 현재 87개 지점에 내점형 점포를 운영 중이며, 전국의 모든 지점에 내점형 점포를 신설하는 것은 업계 최초임.
 - 내점형 점포에서는 보험 전반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며, 특히 지점 설계사 뿐만 아니라 본사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둠.

- 니혼생명 외에도 일본의 여러 보험회사들이 고객과의 대면 채널을 확대하여 새로운 고객군을 발굴하기 위해 내점형 점포 확충에 주력하고 있음.
 - 현재 니혼생명의 주요 판매 채널은 약 4만 명에 달하는 설계사 조직이지만 맞벌이 인구의 증가로 주간에 방문할 수 있는 가정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설계사 채널의 영업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.
 - 또한 니혼생명은 중국 등 신흥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면서도 20~30대 젊은 고객층 등의 미개척 고객군을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.
 - 니혼생명 외에도 내점형 점포 확대가 새로운 고객층 발굴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메이지생명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내점형 점포를 작년부 터 운영하고 있으며, 스미토모생명도 미츠이생명과 제휴해 일부 내점형 점포를 중심으로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업계의 내점형 점포 확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.

(FujiSankei Business I, 2/3)